

## 삼대 감상문

5조: 20011722 김정호

책 삼대에는 첩, 가부장적인 사회, 기생, 일본 관료, 경찰들 등 현대와는 매우 다른 문화와 관점을 가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돈을 주제로 시대를 바꾸어 보면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하고자 하였다. 과거 이야기를 현대로 가져오는 리텔링 과정에서 꽤 많은 것을 바꾸어야 했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는 과거와는 정말 다른 문화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첩과 주인공의 주변인물들의 직업 등을 바꾸어야 했다. 첩은 불륜 혹은 전처로 주인공의 직업은 대학생, 주인공 할아버지는 대기업 사장 등 여러 면에서 바뀌게 되었다. 스토리와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괜찮은 스토리가 만들어졌고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나 문화, 또는 가능했던 것들은 현대에서는 불가능 하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문화와 관점을 가지는 것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가능한 일은 불가능 해진다거나 불가능 했던 것은 가능해진다는 등, 시대가 변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을 읽기 전 역사는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고, 많은 것이 변해봤자 기술, 삶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미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책을 읽게 되면서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고, 역사는 때로는 오답노트이고, 때로는 정답지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삼대에서 돈을 주 관점으로 보면 주인공은 항상 부자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인공의 가족들은 주인공의 할아버지 유산을 탐내고,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은 항상 돈이 없어 궁한 생활을 산다. 물론 삼대를 인물 간의 갈등을 주 관점으로 보면 그저 주인공의 할아버지 유산을 탐내는 가족들의 갈등, 주인공의 아버지와 경희의 관계에 인한 갈등, 조의관의 첩과 주인공의 어머니 간의 관계 등 인물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우리 조는 시대의 변화에도 돈이 중심이라는 것을 현대에 빚대어 자본주의의 굴림을 말해보자는 것이다. 관점, 문화 등의 변화로 과거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 삼대를 현대 시대로 가지고 오자니 여러 부분을 바꾸어야 했고, 바꾸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여러 변경점이 있었음에도 돈으로 인해 가족이 싸운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 돈을 주제로 리텔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느꼈다. 분명 많은 시간이 흘러 문화, 관점, 생활 등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음에도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또 사람들은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점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은 돈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상 계속 돈을 중심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뜻하지 않은 심오한 생각이 들었다.

가부장적인 사회는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그런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삼대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 생각은 당연하듯이 생각하여, '가부장적이다'라는 단어조차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리텔링 과정에서 돈을 추구하는 사회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고 앞서 말했지만, 할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생각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람들 혹은 여러 것들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대 시대에 맞추어 관점, 생각들을 바꾼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과거의 관점과 생

각들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결국 과거에 존재하던 관점, 생각, 문화 등등의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것들은 과거일 뿐 현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내 생각과는 달리 상당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은 과거에 있던 것들은 현대에 전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고만 생각했다. '어느 정도'를 명확히 정의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부장적인 생각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서 현대까지 전해진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종종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역사는 오답노트이기도 하지만 결국 오답노트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삼대 스토리 중에서 주인공의 친구와 연애를 하는 한 여자가 독립운동을 감시하는 일본의 스파이일 경우에 대해 리텔링 해보았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스파이들을 많은 곳에 배치해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책 안에서도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 때문에 어떻게 스토리가 변화될지 리텔링 해보았다. 말한 것처럼 리텔링 할 경우 삼대의 스토리는 생각보다 많이 변하지 않는다. 주인공의 친구 김병화는 결국 잡혀가게 되고, 주인공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도 관련이 있다 하여 모두 잡혀가게 된다. 결국 주인공과 몇몇 인물들만 빠져나오게 되고 병화는 나오지 못한다. 리텔링을 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독립투사분들이 큰 위험을 감수하고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과 감옥에 갇히게 되어 힘든 생활을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도 들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큰일을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본받으며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